

---

# 조선시대 출토직물에 나타난 구름무늬의 조형성과 활용현황에 대한 연구<sup>†</sup>

- 석주선기념박물관 유물을 중심으로 -

황진영\*

---

## 〈目次〉

- |                          |                   |
|--------------------------|-------------------|
| I. 서론                    | IV. 전통 구름무늬의 활용현황 |
| II. 구름의 상징성              | V. 결론             |
| III. 전통직물에 나타난 구름무늬의 조형성 |                   |

---

## 요약

해외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문화 콘텐츠의 다양한 시도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요구된다. 현재 각 박물관의 대표유물들을 활용하여 현대적인 디자인에 접목하는 사례가 많아졌으며, 이를 통해 박물관 소장 유물에 대한 관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제2의 전시실로 불리는 뮤지엄 샵의 이용까지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각 박물관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살리면서 창의적이고 홍보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나올 수 있는 방안들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이다. 특히 한국의 정체성과 역사와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전통무늬는 디자인 활용에 가장 효과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요소로서 현대화 과정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된 출토 직물 중 구름무늬를 선정하여 다양한 표현을 가진 무늬를 소개하여 이 자료들을 토대로 현대화 할 수 있는 자료와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구름무늬의 상징성과 문헌 등의 이론적 고찰을 하고, 조선시대 출토복식 직물에 표현된 구름무늬를 표현방법, 배치구성에 따라 9가지의 양식으로 분류하여 조형적 특징을 살펴본다. 또한 현재 응용되고 있는 박물관의 직물무늬의 활용사례와 함께 석주선기념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전통무늬를 제공하여 박물관 문화상품, 텍스타일 디자인 등의 기초자료서 소개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구름무늬, 조선시대, 문화상품, 텍스타일, 출토복식, 전통직물

---

<sup>†</sup> 본 연구는 2022년도 한영장학재단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학예연구원

(접수일 : 2023.10.31. 심사일 : 2023.11.28. 게재확정일 : 2023.12.14.)

## I. 서론

해외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문화 콘텐츠를 산업에 도입하여 상품화 할 수 있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 각 박물관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대표유물들을 활용하여 현대적인 디자인에 접목하는 사례가 많아 졌으며, 이를 통해 박물관의 관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제2의 전시실로 불리는 뮤지엄 샵의 이용까지 높아지며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정체성과 역사와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전통무늬는 디자인 활용에 가장 효과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요소로서 현대화 과정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 이를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홍보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나올 수 있는 방안들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통무늬 중 하나인 구름무늬는 식물무늬와 함께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중국·일본에서 각종 공예품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조선시대 출토복식의 직물무늬에 많이 발견되는 무늬이다. 직물에 시문 된 구름무늬는 고려시대 복장직물에서도 일부 확인되나, 대부분 조선시대 출토복식의 직물과 흉배나 소품 등의 자수품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다. 조선시대 직물무늬와 관련하여 선행된 연구는 무늬의 조형성 분석 및 상징성을 분석하는 이론적 연구와 전통무늬를 재해석한 디자인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전통 직물무늬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연꽃, 모란 등의 꽃무늬를 주제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sup>1)</sup> 조선시대 출토복식에서 구름무늬에 대한 연구는 꽃무늬에 비해 발표사례가 적다. 한국, 중국, 일본 중 전통 구름무늬를 현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접목하여 기업이나 기관의 로고, 디자인 제품 등에 활용하는 국가는 중국<sup>2)</sup>으로,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부드러우면서 여성적인 이미지가 강한 식물무늬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며, 남성적이며, 무거운 이미지로 인식하는 구름무늬에 대한 선호도는 낮은 편으로 볼 수 있다.<sup>3)</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석주선기념박물관에서 발표된 52건의 출토복식 중 구름무늬를 선정하여 조형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구조적 특징을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전통구름무늬의 조형성과 다양한 형태적 특징을 실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1차 목적이며, 박물관의 소장 유물을 응용한 문화상품 및 텍스타일 디자인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 1) 이은진, 2017, 「한국 전통 직물의 연꽃무늬 유형 연구」, 『服飾』 Vol.67, No.1, 한국복식학회 ; 장소영, 2016, 「전통 꽃문양을 응용한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Vol.16, No.2, 한국패션디자인학회 ; 교단·정영옥·이은진, 2012, 「한국 직물 모란무늬의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服飾』 Vol.62, No.7, 한국복식학회.
- 2) 이사라, 2019, 「중국 전통구름문양의 조형 양식과 현대적 활용에 대한 연구」, 서울: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김증자·조지현, 2000, 「한국 전통무늬의 현대적 응용을 위한 선호도 및 이미지 평가」,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Vol.2, No.1, 한국의상디자인학회.

있는지 현황을 확인하고,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이다. 이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남성과 왕실을 대표하여 활발하게 사용된 구름무늬의 다양한 특징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박물관의 문화상품, 텍스타일 디자인 등 상품의 기획 과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기초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연구방법은 구름무늬에 관련된 상징성과 개념을 고찰한다. 직물무늬의 수집은 석주선기념박물관에서 발표된 출토복식 목록을 연구대상으로 형태, 구성, 배치 등의 분석을 통해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현재 박물관들에서 문화상품에 접목된 전통무늬를 조사해보고, 앞으로 전통직물무늬를 활용하여 문화상품이나 텍스타일 디자인 등에 조화롭게 어우러져 현대화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 II. 구름의 상징성

무늬는 아름다움과 미적인 표현을 위해 공예품이나 직물에 장식적인 기능으로 치중하였지만 전통무늬는 의미에 따라 상징성을 부여하여 표현된 것들이 대부분으로 장식보다는 의미가 더 중요하였다. 조선시대 출토복식에 나타난 직물무늬는 식물, 동물, 자연, 문자, 기하, 인물, 보문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 중 연꽃, 모란 등의 꽃무늬와 함께 구름무늬가 눈에 띄게 많이 확인되고 있다.

구름의 상징은 땅과 하늘, 해와 달, 바람 등 만물을 소생시키는 자연현상 중 하나로 고대부터 경외시하던 대상이었다. 『삼국유사』의 고조선에 대한 기록 중 “환웅이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를 거느리고 인간의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sup>4)</sup>는 내용처럼 구름을 신비로운 영물로 기록하고 있다. 농경사회에서 자연현상은 신성스러운 의미로 길흉을 점치거나 권력이나 왕권을 상징함으로써 왕을 상징하는 용과 함께 구름이 활용되었으며, 왕의 곤룡포, 의궤의 표지 등에 대표적으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구름무늬는 용무늬와 함께 왕이나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신분의 상징으로 자연스럽게 결합되었으며, 1746년 “조선(朝臣)의 장복(章服)과 용복(戎服)은 모두 구름무늬를 사용한다”<sup>5)</sup>라고 기록된 것으로만 보아도 구름무늬는 남성의 권위와 신분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열망을 표현하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sup>6)</sup>

출토복식에서 남성의 단령이나 철릭 등의 관복과 일상 편복에서도 구름무늬가 확인되는데,

- 4) 『三國遺事』「紀異」第1, 古朝鮮(王儉朝鮮).
- 5) 『秋官志』1746, 第四編, 掌禁部 申章 奢侈.
- 6) 김민정, 2002, 「朝鮮時代 出土服飾에 나타난 雲·雲寶紋 研究」, 서울: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7.

연산군 6년(1500)<sup>7)</sup>의 기록의 내용 보면 유구국 사신이 “대체로 의복이 남자는 운문단(雲紋段)을 사용하고 여자는 화문(花紋)을 사용하는데, 중국 사람의 말에 조선 사람들은 화문으로 남자의 의복을 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없는 것이다.”라고 기록한 내용과 같이 남성의 대표적인 무늬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왕실의 여성의 원삼 등의 의례복에서도 구름무늬 직물을 사용한 기록이 있으며, 여성의 출토복식에서도 구름무늬가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위의 내용처럼 꽃무늬를 남자들도 사용한 것과 같이 큰 규제없이 일부 계층에서도 혼용하여 구름무늬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 문헌에 무늬있는 직물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무늬의 옷들은 유문(有紋)”<sup>8)</sup> 등으로 주로 통칭하여 기록되었고, 구름무늬는 “운문(雲紋)”으로 구름의 명칭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으로 보아 당시 구름무늬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확인할 수 있다.<sup>9)</sup>

조선시대 이전 구름무늬에 관련된 문헌의 기록은 미비하나, 『고려사』에 “합라운안(合羅雲鴈)무늬 비단이 5필, 가늘게 짠 반구운안(盤毬雲鴈)무늬 비단이 10필, 가늘게 짠 찬안운지(橫鴈雲地)무늬 비단이 10필”<sup>10)</sup>의 내용으로 고려시대 구름무늬 직물의 기록이 확인된다. 그에 비해 조선시대에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의궤』, 『상방정례』 등 많은 기록이 확인된다.

처음으로 구름무늬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 것은 세종15년<sup>11)</sup>으로 “골타운암화(骨朶雲暗花)”, “팔보골타운암화(八寶骨朶雲暗花)”의 직물을 중국에서 받은 기록이 확인되었으며, 그 이후 문종부터 성종대까지는 “골타운”으로, 연산군 6년<sup>12)</sup>부터는 “운문(雲紋)”으로 기록된다. 여기서 기록된 골타운(骨朶雲)은 중국에서 쓰이는 명칭으로 『노걸대』나 『박통사』에서 골타운을 ‘떼구름문’, ‘굴근떼구름문’, ‘팔보끼고굴근운문’이라 언해 하였다.

7) 『연산군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12일 임술, “凡衣服, 男用雲紋, 女用花紋. 中朝人云: 「朝鮮人以花紋爲男服,」是男女無別也”.

8) 『영조실록』 127권, 영조 52년 3월 9일 경진, “多紅有紋緞袴襪, 藍有紋綾長衣, 玉色稀紋緞袴襪, 藍稀紋緞長衣, 藍扇紬長衣, 灰色宮綃袴襪, 土色有紋緞長衣, 土色有紋緞袴襪, 藍扇紬長衣, 藍扇緞袂袖周衣, 粉紅有紋綾袴襪, 藍扇緞長衣, 藍有紋緞長衣, 草綠有紋緞袴襪, 軟藍有紋緞長衣, 粉紅有紋緞袴襪, 土色龍紋緞袴襪, 藍禾花紬長衣, 紫的有紋緞袴襪”.

9)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전통무늬 직물1』, 놀와: 서울, p.30.

10) 『高麗史』 卷9, 「世家」 9 文宗 3, 문종 32년(1078) 무오년 6월.

11)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0월 13일 임술, “賜幣紵絲骨朶雲暗花大紅一匹, 骨朶雲暗花柳綠一匹, 骨朶雲暗花深青一匹, 八寶骨朶雲暗花大紅一匹, 細花深桃紅一匹, 細花鸚哥綠一匹, 素柳黃一匹, 素青一匹, 羅大紅二匹, 柳黃二匹, 黑綠二匹, 青二匹, 紗骨朶雲暗花大紅一匹, 骨朶雲暗花青一匹, 八寶骨朶雲暗花鸚哥綠一匹, 八寶骨朶雲暗花黑綠一匹”.

12) 『연산군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12일 임술, “凡衣服, 男用雲紋”.

### III. 전통직물에 나타난 구름무늬의 조형성

석주선기념박물관에서 1981년부터 현재까지 학술발표와 특별전시에서 공개된 출토복식은 묘주의 기준으로 총 52건이다. 아래의 <표 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 중 59.6%의 31건 109 점에서 구름무늬가 나타난다. 구름무늬는 한 묘주의 출토복식에서도 형태나 배치구성이 다른 양식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남성 68%, 여성 32%로 남성의 비율이 높게 확인된다. 출토된 운문의 종류는 살펴보면, 남성의 복식에서는 단령, 답호, 철릭, 창의, 방령 등 의복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저고리의 끝동이나 결마기 등에 일부 장식부분에 주로 사용되었다. <그림 1, 2>



<그림 1> 운문단으로 제작한 단령  
탐릉군(1636-1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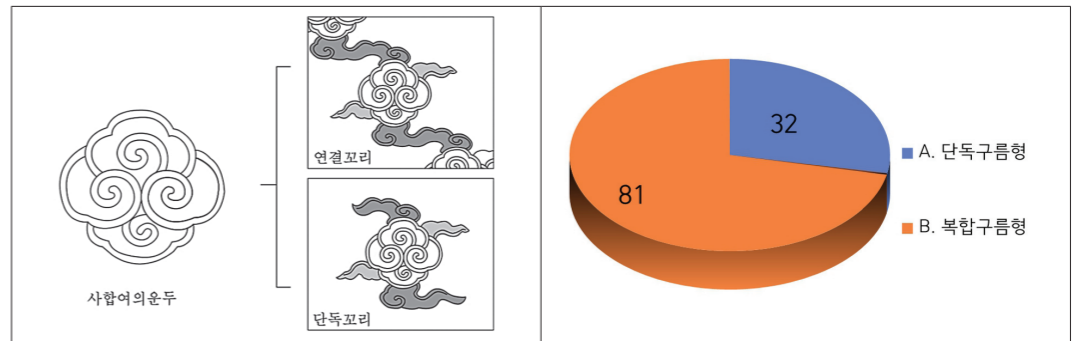
<그림 2> 소매 끝동에 구름무늬를 사용한 당의  
해평윤씨(1660-1701)

<표 1> 석주선기념박물관 출토복식 목록(발표일 기준)

번호	묘주명	년대	묘주 성별	출토지	구름 무늬	수량	참고자료
1	청연군주	1754-1821	여자	경기도 광주	○	1	한국복식 1호
2	광주이씨	이언웅	남자	경기도 과천	○	4	한국복식 1호
3		청주한씨	1500년대 후반				
4	전주이씨 탐릉군(이변)	1636-1731	남자	경기도 용인	○	6	한국복식 1호 제42회 특별전
5	남양홍씨	1550년대	남자	경기도 양주	○	2	한국복식 1호
6	양천허씨	1500년대	여자	충남 청양	○	2	한국복식 6호
7	경주이씨 이태곤	1672-1763	남자	충북 진천	○	2	한국복식 6호
8	김해김씨 김함 (개인소장 위탁유물)	1568-1596	남자	전남 영암	-	-	한국복식 6호
9	동래정씨	정휴복	남자	경기도 성남	-	-	한국복식 7호
10		정호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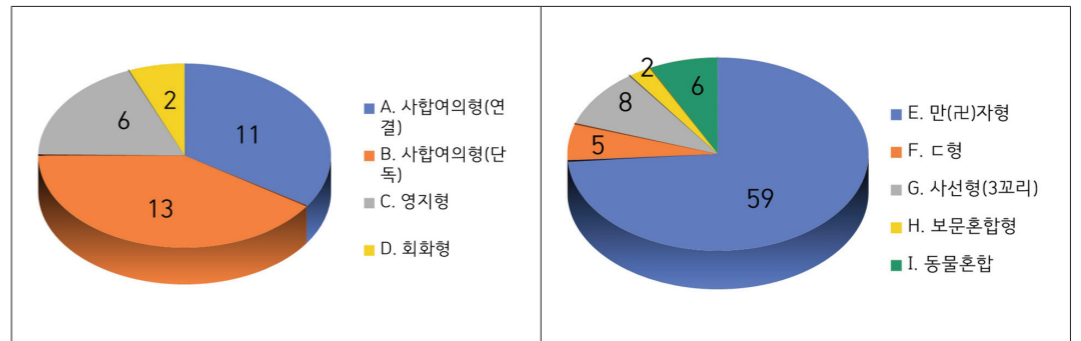
11		정양우	1574-1647	남자		○	3	
12	동래정씨	남양홍씨	1584-1654	여자	경기도 여주	○	4	한국복식 8호
13		정태제	1612-1669	남자		○	4	
14		정응두	1508-1572	남자		경기도 고양	○	
15	은진송씨	1509~1580	여자	○	3			
16	문화유씨		1615-1685	여자	서울 노원구	-	-	한국복식 10호
17		이계운	1431-1489	남자				
18	전주이씨	이담	1371-1431	남자	경기도 광주	-	-	한국복식 11호
19		함평이씨	1500년대	여자				
20	양천허씨		1630-1660	여자	경기도 고양	○	1	한국복식 11호
21	풍산홍씨	홍희준	1761-1841	남자	충남 천안	○	2	한국복식 12호
22	풍산홍씨	홍감보	1699-1763	남자	충북 충주	○	2	한국복식 13호
23	수성최씨	최숙(국가귀속유물)	1636-1698	남자	경기 화성	○	7	한국복식 14호 특별전(2022)
24	제주고씨	고여우	1560-1630	남자	충남 천안	○	1	한국복식 15호
25		단양우씨	1544-1613	여자				
26		고경행	1600년대 중반	남자				
27	경주정씨	정온	1481-1538	남자	경기도 파주	○	2	한국복식 16호
28	고령신씨	신언식	1519-1582	남자	경기도 일영	-	-	한국복식 17호
29		신여관	1530-1580	남자		○	2	
30		양천허씨	1566-1626	여자		○	1	
31	전주이씨	이익정	1699-1782	남자	서울 마포	○	4	한국복식 19호
32	성주이씨	이언충	1524-1582	남자	서울 노원	-	-	한국복식 20호
33	해평윤씨	남아미라	1600년대 중반	남자	경기도 양주	-	-	특별전(2002)
34	파평윤씨		1735-1754	여자	충남 예산	○	2	한국복식 21호
35	전주이씨	밀창군(이직)	1677-1746	남자	서울 마포	○	4	한국복식 22호
36	진주강씨	강대호	1541-1624	남자	경기도 파주	○	2	한국복식 23호
37	강릉김씨		1520년대	여자	대전 동구	-	-	한국복식 25호
38	평산신씨	신경유	1581-1633	남자	경기도 용인	○	18	한국복식 26호 특별전(2008)
39	해남윤씨	윤선언	1580-1628	남자	경기도 광주	○	8	한국복식 27호 특별전(2009)
40		순흥안씨	1551-1609	여자		○	4	
41		미상	1600년대 전반	여자		○	1	
42	해평윤씨		1660-1701	여자	경기도 파주	○	6	한국복식 28호 특별전(2010)
43	파평윤씨	윤좌형	1600년대	남자	전북 부안	-	-	한국복식 29호
		고부이씨	1600년대 초반	여자		-	-	

44	청주한씨	한준민	1570-1638	남자		-	-	한국복식 31호 특별전(2013)
45		여흥민씨	17세기 전반	여자		-	-	
46		평양조씨	17세기 전반	여자		-	-	
47	무연고 여자 묘		1500년대 중반	여자	천안 유량동	○	2	한국복식 33호 특별전(2015)
48	경주이씨		1600년대 중후반	여자	경기도 용인	○	2	한국복식 37호 특별전(2017)
49	전주이씨	이헌충	1505~1603	남자	경기도 포천	-	-	한국복식 41호 특별전(2019)
50		안동김씨	1500년대 전반	여자		○	1	
51	창령성씨	성급	1553-1621	남자	경기도 파주	-	-	한국복식 45호 특별전(2021)
52		평창이씨	1600년대 초 추정	여자		-	-	



〈그림 3〉 구름무늬의 기본 구조

〈그림 4〉 구름의 기본구성 수량



〈그림 5〉 단독배치형 구름 출현수량

〈그림 6〉 복합배치형 구름 출현수량

직물에 표현된 구름의 형태는 대부분 중앙에 영지의 형태를 가진 4개의 여의가 합쳐진 사합여의형(四合如意形)의 운두를 중심으로 상하좌우에 꼬리가 있는 것이 대표적인 구름무늬의 구조이다. 〈그림 3〉과 같이 상하의 꼬리가 연결되지 않는 구름의 구성과 상하의 꼬리를 주변

〈표 2〉 구성요소에 따른 구름무늬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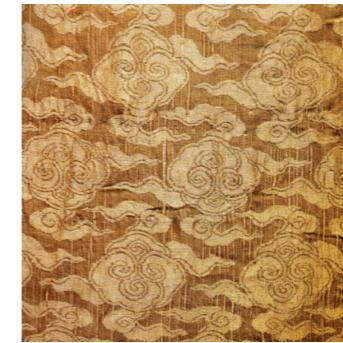
구성 요소	배치	수량	이미지		
단독배치형	구름	A. 사합여의형 + 연결꼬리	11		
		B. 사합여의형 + 단독꼬리	13		
		C. 영지형	6		
		D. 회화형	2		
복합배치형	구름 + 보문	잡보문	E. 만(卍)자형	59	
			F. ㄷ형	5	
		G. 사선형(3꼬리)	8		
	팔길상문 + 잡보문	H. 보문혼합형	2		
	구름 + 동물	I. 동물혼합	6		

의 운두와 연결하는 기본구성을 가진다.

구름무늬의 기본구성은 배치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구름무늬만 배치한 단독무늬형과 주무늬인 구름 주변으로 보조무늬인 보문 등의 무늬를 함께 배치한 복합무늬형으로 구분 지을 수 있으며, 〈표 2〉와 같이 구름무늬를 구성과 배치에 따라 9종류로 나눌 수 있다.

구름을 단독으로 사용한 직물은 4종류로 32점(29%)이며, 복합무늬형은 5종류로 81점(73.6%)이다. 가장 많은 출현율이 높은 배치는 보문과 만(卍)자가 함께 배치된 E형으로 59점(53.6%)을 차지한다. 〈그림 4~6〉

### 1. 단독배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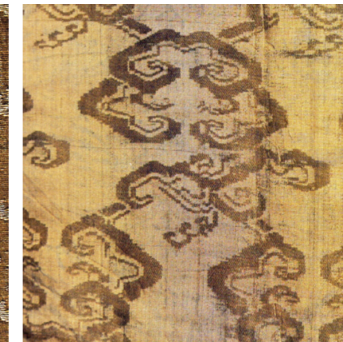
〈그림 7〉 큰 구름무늬 양천허씨(1566-1626)



〈그림 8〉 작은 구름무늬 신경유(1581-1633)



〈그림 9〉 C형 작은 구름 남양홍씨(1584-1654)



〈그림 10〉 C형 영지무늬형 구름 남양홍씨(1584-1654)



〈그림 11〉 D형 회화형 구름 은진송씨(1509-1580)

단독배치형에서 가장 비교되는 것은 구름의 크기와 표현방법이다. 〈그림 7, 8〉은 A형과 B형은 사합여의운두에 만(卍)자형 꼬리를 가진 형태로 〈그림 3〉과 같이 꼬리연결형과 단독꼬리형이다. 운두의 크기가 가로기준으로 1.5~12cm까지 다양한 크기로 제작되었다. C형은 꼬리가 없

는 영지형태로 가로 1~2.5cm의 작은크기로 <그림 9>와 같이 격자배치하여 멀리서 보면 타원형의 원형무늬로 보여진다. 특히 <그림 10>의 경기도 여주에서 출토된 정양우(1574-1647)의 부인 남양홍씨(1584-1654)의 저고리에 사용된 직물을 보면, 영지를 겹치게 배치하고, 선의 굵기에 차별을 두어 표현한 것으로 사합여의문의 정형화 된 양식과 자유로운 구름의 회화적인 양식이 조합된 독특한 조형미를 표현하고 있다. 이 구름무늬를 고려시대의 영지형태의 구름무늬가 변형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13)</sup> D형은 구름의 유기적인 형태를 회화적으로 표현한 양식으로 <그림 11>의 경기도 고양시에서 출토된 정응두(1508~1572)의 부인 은진송씨(1509~1580)묘 출토복식에서 확인된다. 이 무늬는 영지무늬를 사용하지 않고 물결처럼 흘러가는 구름의 사실적 현상을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을 사용하여 회화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 2. 복합배치형

복합배치형은 주무늬인 사합여의형의 구름무늬에 상서로운 기운을 상징하는 기물무늬인 보문을 보조문으로 운두와 꼬리 사이에 함께 배치한 구조이다. E형, F형, G형은 일반적인 잡보문을 사용한 무늬로 금정(金錠), 만자(卍字), 방승(方勝), 방승(쌍방승), 보주(寶珠), 산호(珊瑚), 서각(犀角, 쌍서각), 서보(書寶), 애엽(艾葉), 여의두(如意頭), 전보(錢寶), 전보(쌍), 특경(特磬), 화보(畫寶)<sup>14)</sup> 등을 4개~8개를 평균적으로 사용하여 배치하고 있다.

꼬리의 방향을 ㄷ자형으로 배치한 F형은 총 3점이 확인 되었으며, 1500년대에 주로 나타나는 배치양식으로 1600년대에도 간혹 확인이 된다. 특히 <그림 12>의 신경유(1581-1633)묘에서 출토된 철릭의 구름무늬로 ㄷ자형의 꼬리와 보문이 배치되어있다. 일반적으로 <그림 13>과 같이 구름과 구름 사이의 여백에 보문을 배치하는 형태이지만 이 무늬에서는 구름과 꼬리의 안쪽으로 보문을 시문한 독특한 조형성을 가진 무늬이다. H형은 보문이 혼합된 양식으로 이에 해당되는 유물은 2점이 있다. 충북 진천 이태곤(1672-1763)의 묘에서 출토된 단령의 안감에 보면 불교에서 의식에 사용하는 기물들인 연화(蓮花), 법라(法螺), 보병(寶瓶), 반장(盤長)의 팔길상문과 영지, 전보, 금정, 경보, 만자, 서각, 여의두, 방승 등 잡보문을 함께 배열하였다. 경주이씨(1600년대 중후반)의 저고리에서도 영지형 구름 중심에 태극무늬와 파도위에 금어, 경보, 보개 등을 혼합하여 여백 없이 무늬를 충전하였다. 조선후기의 보문은 아름답고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해 일반보문, 불가와 도가의 팔길상무늬 등 여러가지의 보문을 혼합하여 사용한 예가 많이 나타난다.<sup>15)</sup> <표 3>

13)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앞책』, p.368(주 9).  
 14) 잡보문은 이은주(2019)의 명칭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15)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앞책, p.402(주 9).



<그림 12> F. ㄷ형  
신경유(1581-1633)

<그림 13> 만(卍)자형  
신경유(1581-1633)

<표 3> 출토복식에 표현된 보문의 종류

무늬	유물 사진							
잡보문								
양천허씨(1400-1450)	전보	보주	금정	애엽	서각	산호	서보	
보문 혼합								
이태곤(1672-1763)	보병	법라	연화	반장	영지	전보	금정	
보문 혼합								
경주이씨 (1600년대 중후반)	영지형구름	태극	경보	금어	보개	보산	파도	

I형은 만자형의 단독 구름과 운학, 용, 봉황무늬를 배치한 무늬와 회화형 구름에 운학을 배치한 두 가지로 확인된다. I형은 보조무늬가 없이 구름과 동물이 모두 주무늬로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에서 출토된 남양홍씨(1584-1654)의 치마에 시문된 무늬는 일자형 배치로 구름무늬에서만 해당되는 양식이 아닌 여러무늬에 다양하게 사용된 배치 방식으로 <그림 14>와 함께 출토된 <그림 15> 솜치마에서도 꽃무늬를 상하 일자형으로 배치한 것이 확인이 되고 있다. <그림 16> 윤선언(1580-1628)과 <그림 17> 해평윤씨(1660-1701) 묘의 출토 직물무늬에는 만자형 구름에 봉황과 원용문이 함께 시문되어 있다. 그 외에 상하일자형 외에 <그림



〈그림 14〉 일자형 배치(구름과 운학)  
남양홍씨(1584-1654)



〈그림 15〉 일자형 배치(꽃무늬)  
남양홍씨(1584-1654)



〈그림 16〉 구름+원용 배치  
윤선언(1580-1628)



〈그림 17〉 구름+봉황 배치  
해평윤씨(1660-1701)



〈그림 18〉 회화형+운학 배치  
최숙(1636-1698)

18)과 같이 최숙(1636-1698)의 묘에서 출토된 구름무늬는 D형 회화형에 운학이 배치된 구성을 보이고 있다.

### 3. 시기별 구름무늬의 출현빈도

배치구성에 따른 9가지 유형의 시대별 출현 빈도를 <표 4>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세기에서 17세기까지는 9가지의 양식이 모두 존재하여 다양한 구름무늬를 사용했던 반면, 18세기부터는 구름무늬가 정형화되고, 다양성이 축소된다. 사합여의운두와 만자형 꼬리로 구성된 기본형태에 보문을 보조무늬로 사용한 E형 구름무늬만이 19세기까지 출토복식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만자형 구름에 보문이 시문된 E형은 54%(59점)로 과반수 이상 분포하여 운보문이 조선시대 대표적으로 선호하는 양식이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1500년대부터 출현하는 운보문은 많은 유물과 자료를 통해 이은주(2019)는 ‘정하 운보문 판독법’을 제시하여 보

〈표 4〉 시기별 구름무늬의 출현빈도

시기	묘주명	A형	B형	C형	D형	E형	F형	G형	H형	I형
16세기	남양홍씨(1550년대)					1	1			
	양천허씨(1500년대)					1				
	안동김씨(1500년대 전반)							1		
	정은(1481-1538)	1						1		
	무연고 여자(1500년대 중반)	1				1				
	정응두(1508-1572)					3	2	1		
	은진송씨(1509~1580)				2	1				
	신여관(1530-1580)		2							
	청주한씨(1500년대 후반)	1	1			2		1		
17세기	순흥안씨(1551-1609)	2				2				
	윤선언家미상(1600년대 전반)		1							
	단양우씨(1544-1613)					1				
	강대호(1541-1624)							2		
	양천허씨(1566-1626)	1		1						
	윤선언(1580-1628)	1	1			3		2		1
	신경유(1581-1633)	1	4	1		10	2			
	정양우(1574-1647)					3				
	남양홍씨(1584-1654)			2		1				1
	양천허씨(1630-1660)	1								
	정태제(1612-1669)		3			1				
	경주이씨(1600년대 중후반)	1	1						1	
18세기	최숙(1636-1698)					4				3
	해평윤씨(1660-1701)	1		2		2				1
	탐릉군(이변)(1636-1731)					7				
	밀창군(이직)(1677-1746)					4				
	파평윤씨(1735-1754)					2				
	이태곤(1672-1763)					1			1	
	홍감보(1699-1763)					2				
	이익정(1699-1782)					4				
19세기	청연군주(1754-1821)					1				
	홍희준(1761-1841)					2				

문의 배열을 통해서 직물의 편년을 추정 할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sup>16)</sup>

#### IV. 전통 구름무늬의 활용현황

구름무늬는 남성의 권위와 상서로움, 불로장생 등의 의미를 가진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식물무늬에 비해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꽃무늬는 다양한 꽃과 회화적이거나 사실적인 표현방법이 많은 반면, 구름무늬는 사합여의운두의 만자형꼬리로 정형화된 형태만 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의 한계가 있어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조선시대 직물에 표현된 구름무늬는 다양하다. 이러한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전승하면서 현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람자나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무늬의 상징성과 조형적인 다양성을 제공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한국전통문화의 가치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매개체는 박물관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표유물인 반가사유상, 왕실복식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고궁박물관 등 기관의 특성에 맞는 대표유물이나 무늬를 활용하여 문화상품을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으며, 전통문화 콘텐츠의 문화 소비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표 5>

<표 5> 박물관의 대표유물과 문화상품 제작 사례

문화 상품				
유물 (기관)	반가사유상 (국립중앙박물관)	영친왕 일가 복식 (국립고궁박물관)	얼굴무늬 수막새 (국립경주박물관)	돌도끼 (전국 선사박물관)
출처	www.museumshop.or.kr	www.khmall.or.kr	www.museumshop.or.kr	smartstore.naver.com/gmuseumshop

검색일 : 2023. 12. 01

이번 장에서는 전통무늬를 활용하여 제작되고 있는 문화상품을 조사해보고, 전통직물 중 구름무늬를 재해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16) 이은주, 2019, 「외규장각 의례 책의 문양을 통한 운보문 편년 설정 방법」, 『문화재』 Vol.52 No.4, 국립고궁박물관, p.25.

<표 6> 뮤지엄샵의 굿즈에 활용된 전통무늬 종류

종류	몫즈		지뮤지엄샵	
꽃무늬				
				
동물 무늬				
십장생 무늬				

검색일: 2023. 12. 01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상품샵 ‘몫즈’<sup>17)</sup>와 (재)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지뮤지엄샵’<sup>18)</sup>에서 전통무늬를 활용한 상품을 통해 현재 전통무늬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문화상품의 분포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표 6>에서 확인되듯이 연꽃, 모란 등 식물무늬를 활용해 상품을 개발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이는 김증자·조지현(2000)의 연구결과와 같이 식물무늬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학이나 용, 나비 등이 표현된 동물

17) <https://www.museumshop.or.kr>

18) <https://smartstore.naver.com/gmuseumshop>





〈그림 19〉 티코스터  
‘뭉즈’

〈그림 20〉 우산  
‘뭉즈’

〈그림 21〉 포장지  
경기도 박물관 내 뮤지엄샵  
(연구자 촬영)

무늬이며, 십장생이나 일월오봉도에 표현된 무늬도 많이 활용되고 있었으나 구름무늬의 활용은 〈그림 19〉 티코스터와 〈그림 20〉 우산 두 종류만 확인 되었다. 온라인상에서는 판매하지 않지만 경기도 박물관 내 샵에서는 출토 직물의 구름무늬를 인쇄하여 〈그림 21〉과 같이 포장지를 판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름무늬의 상징이 남성의 권위와 신분상승의 이미지로 인식되면서 무늬를 장식하는 색채에서도 강하고 단단한 느낌의 색 또는 청색이나 어두운 색상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꽃무늬에서는 부드럽고 다양한 색을 배치하기도 하고, 현재 소비자층이 원하는 트렌드의 색을 반영하면서 디자인의 표현방식이 다양해졌지만 구름무늬에서는 유물을 사실적으로 단색으로 표현하면서 상품들이 단조로워졌으며, 소비자들에게 흥미나 시선을 끌지 못하는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보여진다.

전통복식 전문 박물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과 복식유물이 많이 소장 되어있는 경기도박물관의 경우 직물무늬를 활용하여 스카프나 포장지 등 상품화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다양한 디자인은 부족한 현실이다.

박물관의 다양한 전통 콘텐츠의 적극적인 활용은 박물관 자체의 발전을 향상시키고, 여러 분야와 교류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무늬를 사용하여 상품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각 기관의 상황에 따라 다른 대안이나 활용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석주선기념박물관에서는 직물무늬를 활용하여 상품을 제작하는 방법 외에도 대학 내의 패션디자인과와 함께 전통직물무늬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기획하는 수업에 기초 자료를 공유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완성된 자료는 기업체의 텍스타일 디자인 공모전 등에 활용하여 전통무늬의 사용빈도를 높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박물관 자체적으로 전시와 도록 등의 화보에 현대의 색으로 변형한 작품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관람객에게 자연스럽게 전통무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박물관에서 소장한 직물구름무늬의 다양한 형태에 구름의 상징적 이미지와 반대되는 부드러움과 따듯함 같은 이미지 색채를 도입하여 정형

〈표 7〉 전통무늬를 활용한 디자인 사례

전통무늬를 제품화 한 작품	 <p>스카프,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제작</p>
연꽃무늬로 텍스타일 디자인 한 작품	 <p>한영 텍스타일디자인 공모전 입선작, 연구자 제작</p>
직물무늬를 현대색으로 재해석하여 발표한 작품	 <p>경주이씨(1700년대 중후반) 출토 직물<sup>19)</sup></p>
부드럽고 여성 스러운 색감으 로 표현한 구름무늬	 <p>B형(사합여의형+단독꼬리) 과 H형(보문혼합형), 연구자 제작</p>

화되어진 구름무늬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보고자 하였다. 지속적으로 현대적 감성에 맞는 색변형을 통해 구름무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다양한 전통무늬를 활용할 수 있고자 한다.<표 7>

## V. 결론

본 연구는 석주선기념박물관에서 발표된 52건의 출토복식 중 31건 109점의 구름무늬의 조형성과 시대별 분포를 분석하고, 박물관에서 전통무늬를 활용하기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 제안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남성을 대표하는 구름무늬는 권위와 신분의 상징으로서 관복이나 편복류에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여성도 일부이지만 약 32%정도 구름무늬가 확인되었으나 대부분 저고리의 끝동, 견마기 등의 부분 장식에 주로 사용되었다. 출토직물에서 구름무늬는 15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유물이 확인되고 있으며, 크게 구름만 시문 된 단독배치형과 구름 외에 보문이나 동물 등의 다른 무늬를 함께 조합한 복합배치형으로 나뉜다. 배치방법과 구름의 구조에 따라 총 9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만자형 구름과 보문을 주변에 보조무늬로 사용한 유형이 1500년대~180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전체유물의 54%가 해당된다. 또한 1600년대까지는 9가지의 유형의 구름무늬가 모두 사용되었으나 1700년대 이후로는 운보문이 대표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용, 봉황, 운학 등을 함께 배치한 구름+동물 무늬도 일부 사용되었다. 사합여의형의 구름무늬로 정형화되기 전의 다양한 형태의 구름무늬들을 확인하였으며, 영지형의 작은 구름을 격자로 배치한 무늬부터 구름의 유기적인 사실 현상을 회화적으로 직물에 표현하기도 하였다.

국립박물관이나 시·도 박물관의 뮤지엄샵에서 전통무늬를 활용한 문화상품을 분석해 보면 그 주로 연꽃이나 모란 등의 식물무늬의 비율이 높았으며, 사실적인 표현과 함께 다양하고 과감한 색감을 접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다. 그러나 구름무늬의 문화상품은 유물의 사실적표현에만 집중하였으며, 단색이나 청색 등을 사용하여 권위와 위엄은 표현하였으나 전통 문화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관람객에게는 지루하고 단조로운 디자인으로 선호도가 낮으며, 상품의 종류도 다양하게 나오지 않고 있었다.

식물무늬에 비해 선호도가 낮은편인 구름무늬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상품의 개발 외에도 대학 내 텍스타일, 패션 분야의 수업이나 연구에 박물관이 함께 협업하여 기초자료를 꾸준히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완성된 작품은 기업체의 공모전까지 출품이 가능하여 새

로운 디자인과 관심도를 높여줄 수 있다. 또한 박물관 자체적으로 전시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실제 유물과 실제 색상을 복원한 직물로 전시를 하게 되면 구름무늬가 가지고 있는 권위적이고, 남성적인 인식을 이미지가 더욱 높아지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인식을 변화하기 위해 구름의 상징적 이미지와 반대되는 부드러움과 따듯함 같은 이미지 색채를 도입하여 정형화되어진 구름무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아름다운 무늬의 가치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매개체인 박물관에서 꾸준한 전통무늬의 확장성을 잘 활용한다면 경제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일련의 작은 활용방안 등의 연구를 통해 박물관의 문화상품이나 텍스타일 디자인 등 분야에서 전통 무늬를 재해석하여 효과적인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19)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7, 『진주 류씨 류정의 부인 경주이씨 출토 복식』, 경기: 단국대학교 출판부.

## 參考文獻

〈사료〉

『高麗史』

『三國遺事』

『조선왕조실록』

『秋官志』

〈논문〉

김민정, 2002, 「朝鮮時代 出土服飾에 나타난 雲·雲寶紋 研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은주, 2019, 「외규장각 의궤 책의 문양을 통한 운보문 편년 설정 방법」, 『문화재』 Vol.52 No.4, 국립문화재연구소.

〈단행본〉

국립문화재 연구소, 『우리나라 전통 무늬 직물1』, 서울: 놀와.

경기도 박물관, 『의문의 조선, 무늬』, 서울: 민속원.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7, 『진주 류씨 류정의 부인 경주이씨 출토 복식』, 경기: 단국대학교출판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22, 『수성 최씨 숙묘 출토복식』, 경기: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23, 『전주이씨 탐릉군 이변 묘 출토복식』, 경기: 단국대학교출판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5, 『조선시대 피륙의 무늬』,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 A Study on the Formativeness and Utilization status of Cloud Patterns in Textiles Excavated from the Joseon Dynasty

Hwang Jinyoung\*

(Seok Juseon Memorial Museum of Dankook University)

### Abstract

As interest in Korean culture increases overseas, various attempts at traditional cultural content and ways to utilize them are required. Currently, there are many cases of utilizing the representative artifacts of each museum and incorporating them into modern design, and through this, the use of the museum shop, which is called a second exhibition room, is increasing, not only because of the museum's interest. As such, it is time for various ways to come up with ways to enhance creative and promotional effects while preserving the identity and identity of each museum. In particular, traditional patterns that can represent Korea's identity, history and culture are the most effective elements for design utilization and serve as basic data for the modernization proces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cloud patterns among the excavated fabrics housed in the Seok Juseon Memorial Museum, introduce patterns with various expressions, and suggest data that can be modernized based on these materials and methods to increase their usability. As a research method, the symbolism and literature of cloud patterns are theoretically considered, and the cloud patterns expressed in the fabrics excavated in the Joseon Dynasty are classified into nine styles according to the expression method and arrangement composition, and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are examined. In addition,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basic materials such as museum cultural products and textile design by providing various traditional patterns possessed by the Seok Juseon Memorial Museum along with the cases of utilization of the textile patterns of the museum that are currently being applied, and suggest the development plan and possibility to increase the utilization.

[Key Words] Cloud pattern, Joseon Dynasty, cultural products, textiles, excavated clothing, traditional fabrics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Hanyoung Scholarship Foundation in 2022.